

[이슈24]

종목장세 개막

콘텐츠, 헬스케어, 전기차 등 성장주 관련 종목장세 펼쳐질 듯

2018/09/03

■ 전세계 거시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개별 종목장세가 펼쳐지고 있음

거시적인 환경들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로 말미암아 경제예측이 무의미화 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거시변수 등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의 경우 일희일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예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승 지속성에 대하여도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 주식시장에서는 거시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개별 종목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 콘텐츠(엔터, 미디어, 게임), 헬스케어, 전기차 등 성장주 관련 종목장세 펼쳐질 듯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 지난주 환율 등 거시변수 안정화로 인한 외국인 매수 등에 힘입어 바닥을 잡고 반등 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경제로 거시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의 큰 폭 상승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주 장세에서 여실히 보여 주듯이 코스피 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더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수 상승률 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

지난 8월 중순 코스닥 지수가 바닥에서 단지 낙폭과대주 상승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엔터주 등 성장주가 주도주로서 반등함에 따라 향후 거시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개별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엔터주의 성장주 컨셉인 시장 및 제품의 확대 논리가 적용되면서 향후에는 콘텐츠(엔터, 미디어, 게임), 헬스케어, 전기차 등 성장주 관련 종목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 성장 관련 유망주 21선:

- 시장 및 제품 확대(쿠쿠홀딩스, 엠코르셋, 제이에스코퍼레이션, 테이팩스, AI(아이디스), 핀테크(코나아 이)), 5G(알엔투테크놀로지,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유비쿼스), 콘텐츠(JYP Ent, 에스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SM C&C), 스마트카(에코프로, 엘앤에프, 일진머티리얼즈), 헬스케어(엔지켐생명과학), 클라우드(비트컴퓨터), 스마트팩토리(에스피지), 블록체인(삼성에스디에스)

Analyst 이상헌

(2122-9198)

value3@hi-ib.com

■ 전세계 거시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개별 종목장세가 펼쳐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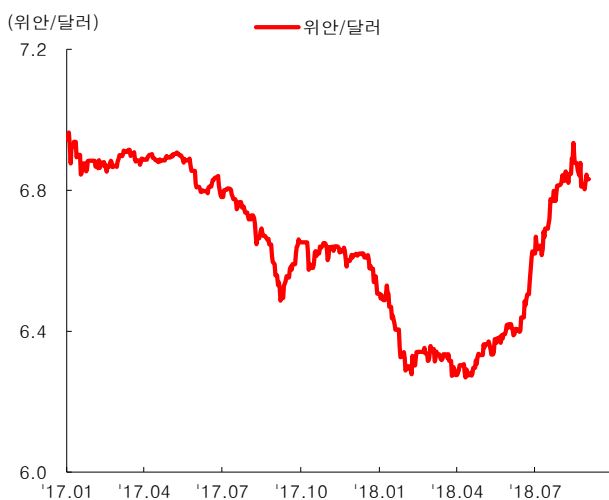
지난 8월 24일 중국 인민은행(PBOC)이 위안화 거래 기준환율을 정하는 데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를 다시 도입한다고 밝힘에 따라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 되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미팅 연설에서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달러강세가 멈추고 달러약세로 돌아섰다.

이와 같이 거시적인 환경들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로 말미암아 경제예측이 무의미화 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거시변수 등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의 경우 일희일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예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승 지속성에 대하여도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 센섹스(SENSEX) 지수의 경우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내수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제약 등에 대한 성장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 주식시장에서는 거시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개별 종목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거시변수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개별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장세가 펼쳐지면서 러셀 2000지수 및 나스닥 바이오업종 지수인 NBI(NASDAQ Biotechnology Index) 등이 상승하고 있다.

<그림 1> 위안/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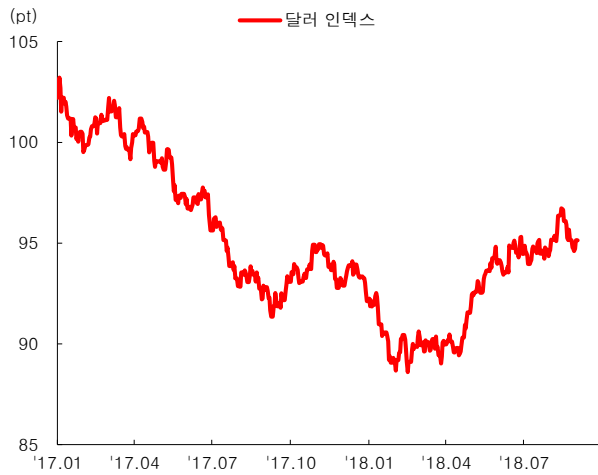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 2> 위안/달러 고시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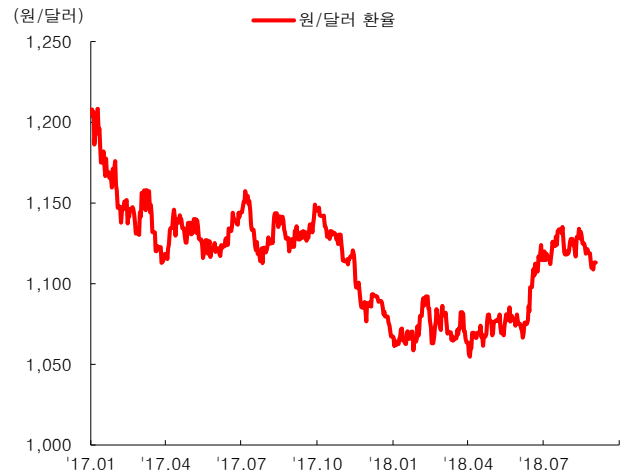
자료: Wind, 하이투자증권

<그림 3> 달러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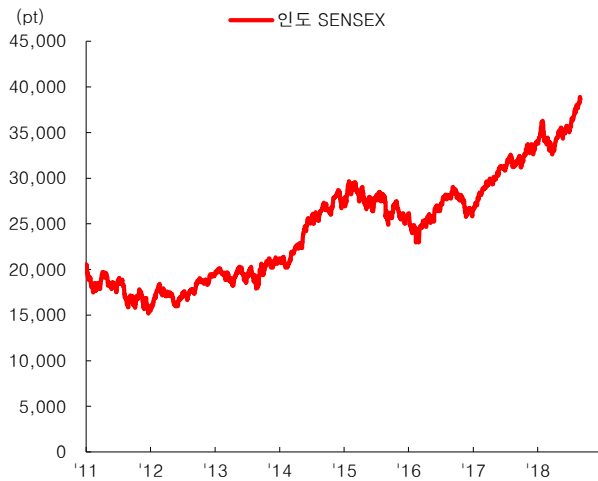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 4>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 5> 인도 SENSEX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하이투자증권

<그림 6> 러셀 2000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하이투자증권

<그림 7> 나스닥 Biotechnology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하이투자증권

■ 콘텐츠(엔터, 미디어, 게임), 헬스케어, 전기차 등 성장 주 관련 종목장세 펼쳐질 듯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 지난주 환율 등 거시변수 안정화로 인한 외국인 매수 등에 힘입어 바닥을 잡고 반등 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경제로 거시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의 큰 폭 상승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주 장세에서 여실히 보여 주듯이 코스피 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더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수 상승률 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

한편,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상승하여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해 1월 29일 코스닥지수는 927.05포인트를 기록하며 1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수급적으로는 지난해 11~12월에 연기금, 금융투자, 은행 등 기관에서 2조4599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바이오 등 건강관리 업종이 코스닥 지수 상승을 주도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제4차 산업혁명 트렌드와는 다소 동떨어짐에 따라 건강관리 업종에 대한 일정부분 거품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건강관리 업종이 올해 4월부터 조정받게 됨에 따라 코스닥 지수의 경우도 조정받았으며, 코스닥 수급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실제 지난 4월, 5월, 7월에 기관에서는 코스닥에서 각각 1,705억원, 1,586억원, 1,526억원을 순매도하였다. 또한 8월 들어서도 기관은 코스닥에서 24일까지 1,142억원을 순매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코스닥 지수 하락의 한 몫 작용하였다.

그러나 건강관리 업종의 경우 일정부분 거품이 기간 및 가격조정을 거쳐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코스닥에 대한 기관매도도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는 상승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코스닥 지수를 Bottom Up 방식으로 살펴보면 8월 16일 지수의 바닥을 확인된것으로 판단된다. 8월 16일 코스닥에서 주도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낙폭과대주가 아닌 JYP Et.(8.21%), 에스엠(6.30%), 와이지엔터(7.05%) 등 엔터주였다. 이들 엔터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향후 실적향상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유통혁명 등으로 인한여 시장의 확대 및 이익율의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척도로 적용하는 PER 등 밸류에이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서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바닥에서 단지 낙폭과대주의 상승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성장주가 주도주로서 반등함에 따라 향후 거시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개별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중심의 지수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패시브펀드가 득세하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수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종목들의 상승 지속성 저해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 짧은 수익율 및 통싷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향후 종목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별 종목들의 상승 지속성이 살아나면서 지수 보다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액티브펀드들이 득세하는 환경들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엔터주의 성장주 컨셉인 시장 및 제품의 확대 논리가 적용되면서 향후에는 콘텐츠(엔터, 미디어, 게임), 헬스케어, 전기차 등 성장주 관련 종목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표 1> 성장 관련 유망종목 21 선

| 구분 | 종목 | 종목코드 | 시가총액(억 원)(8/31기준) |
|------------|-----------|--------|-------------------|
| 시장 및 제품 확대 | 쿠쿠홀딩스 | 192400 | 12,518 |
| | 엠코르셋 | 204020 | 1,244 |
| | 제이에스코퍼레이션 | 194370 | 2,000 |
| | 테이팩스 | 055490 | 1,323 |
| AI | 아이디스 | 143160 | 1,581 |
| 5G | 알엔투테크놀로지 | 148250 | 873 |
| | 오이솔루션 | 138080 | 1,006 |
| | 이노와이어리스 | 073490 | 1,405 |
| | 유비쿼스 | 264450 | 1,921 |
| 블록체인 | 삼성에스디에스 | 18260 | 187,641 |
| 핀테크 | 코나아이 | 052400 | 2,894 |
| 콘텐츠 | JYP Ent. | 035900 | 11,240 |
| | 에스엠 | 041510 | 11,070 |
|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122870 | 7,802 |
| | SM C&C | 048550 | 2,446 |
| 스마트카 | 에코프로 | 086520 | 8,692 |
| | 엘앤에프 | 066970 | 11,970 |
| | 일진머티리얼즈 | 020150 | 25,545 |
| 헬스케어 | 엔지켐생명과학 | 183490 | 8,599 |
| 클라우드 | 비트컴퓨터 | 032850 | 1,122 |
| 스마트팩토리 | 에스피지 | 058610 | 2,161 |

자료: 하이투자증권

<그림 8> 코스닥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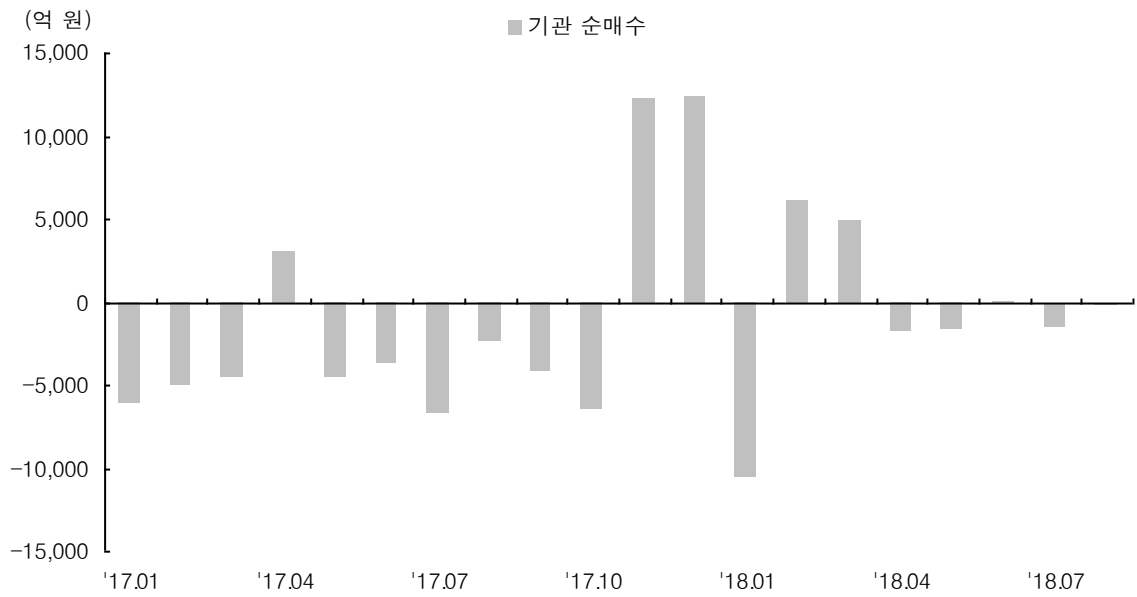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하이투자증권

<그림 9> 코스닥 건강관리업종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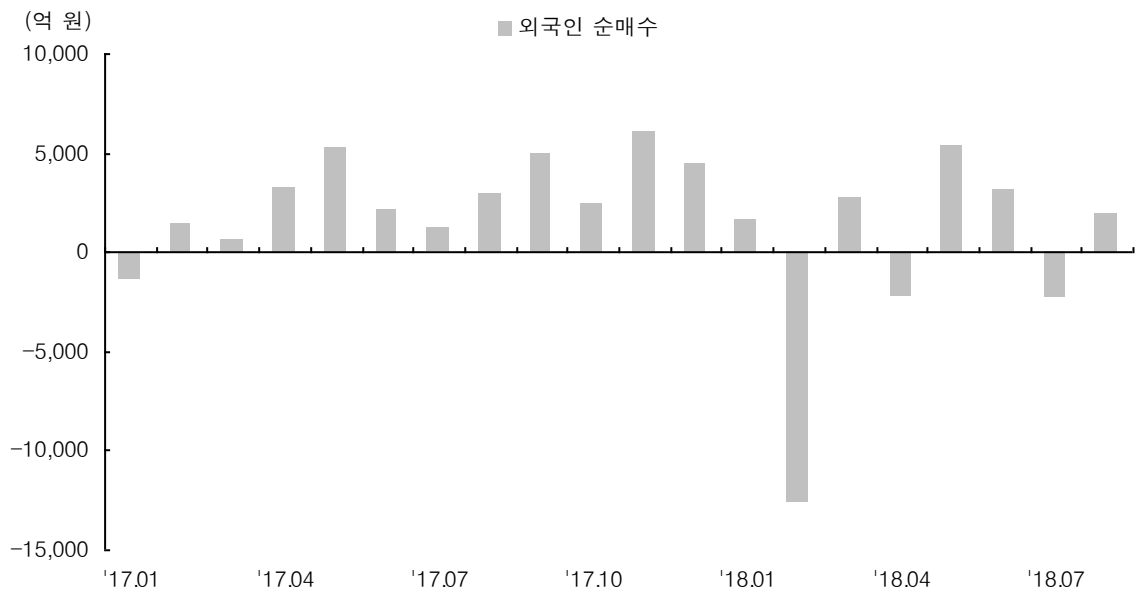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하이투자증권

<그림 10> 월별 코스닥 기관 순매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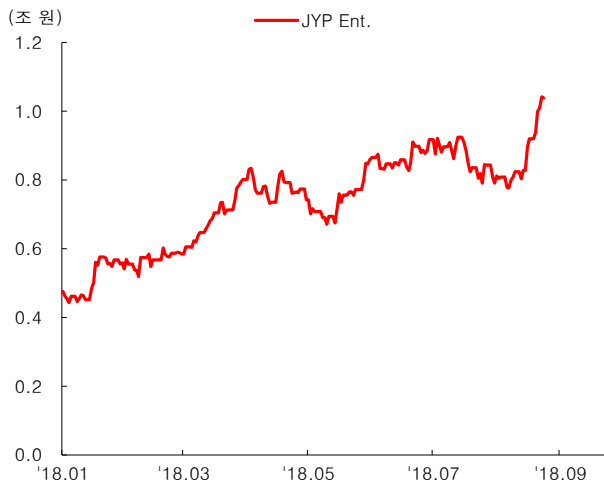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하이투자증권

<그림 11> 월별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대금 추이('18.08.24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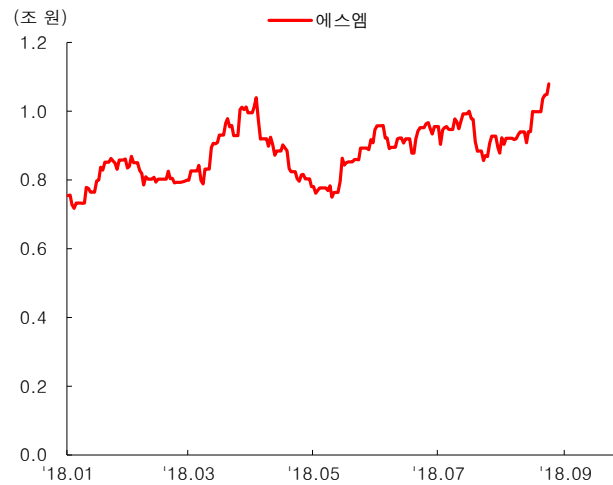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하이투자증권

<그림 12> JYP Ent.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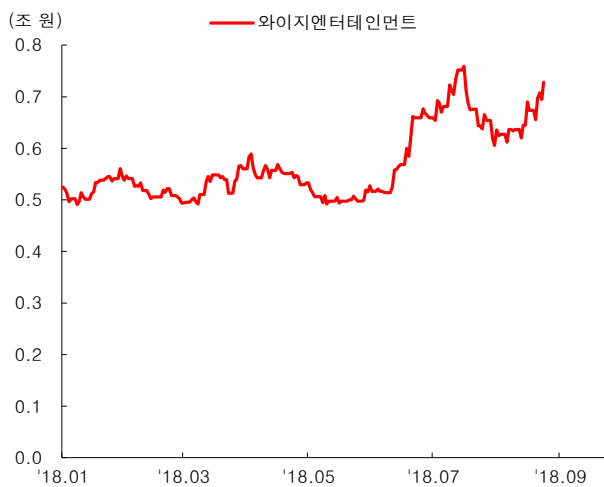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하이투자증권

<그림 13> 에스엠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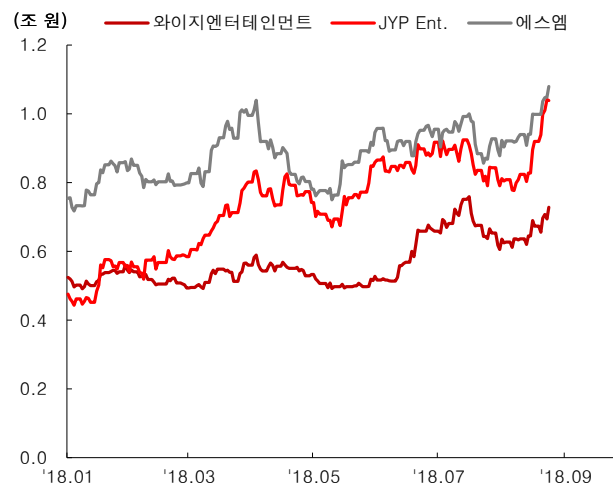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하이투자증권

<그림 1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 추이



자료: Fnguide, 하이투자증권

<그림 15> JYP Ent., 에스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 추이



자료: Fnguide,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06-30 기준

| 구분 | 매수 | 중립(보유) | 매도 |
|------------|-------|--------|----|
| 투자의견 비율(%) | 93.9% | 6.1% | - |

